



K-치킨 해외서 날았다 작년 매출 56%↑



Life

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속도  
L2



# 내년 의대생 증원규모 결정 늦춰져 대교협 “모집인원 5월 말까지 발표”

대교협, 5월 초순순까지 제출 배려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결정 정부 증원분보다 규모 축소 될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해 대학들이 제출해야 하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 사항을 당초 계획대로 4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있지만, 다음 달 초순까지 제출해도 이를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24일 메트로신문에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대학이 학내 사정에 따라 늦어질 경우 5월 초순순까지 받아 변경 심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8월 대교협이 공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은 '올해 4월 말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5월 말까지 심의·조정 완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수정 사항을 원칙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은 변함 없다. 하지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23일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

만, 내년 입시 사안을 정정하는 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학들의 여건을 고려해 내달 초순까지는 제출을 받겠다는 게 대교협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내년 입시 선발 인원을 변경하려면 절차상 먼저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학내 일정상 4월말까지 불가능한 곳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더라도 대교협은 기존과 같이 5월 말까지는 대입 시행계획 변경 심사 및 승인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의 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 선발 규모를 자율 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확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2000명으로, 대학 결정에 따라 1000명까지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비수도권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내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감축을 속속 결정하고 있지만, 사립대는 여전히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의대를 보유한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는 이번 정부 증원 정책에서 의대 정원이 국립대처럼 많이 늘지 않아 아직 다른 대학들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숯폼, 굿즈 제작... 온라인 무료강좌 선정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케이무크' 디지털, 교양 등 다양한 강의 제공

온라인에서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 '케이무크'에 인공지능(AI) 활용 숯폼 미디어창작부터 굿즈 창업 등의 강좌가 새로 개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4일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로 신규 선정된 강의를 발표했다.

2015년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디지털 교양 분야에는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 '놀라운 증명'(CJENM) 등이 선정됐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케글분석(경북대) ▲인공지능(AI) 활용 숯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를 비롯해,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 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 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화를 지원한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노인 3명 중 1명 “노후준비 못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비율 15%

경기도가 '경기도노인통계 2023'을 발간하고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어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 363만 1천 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다.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

(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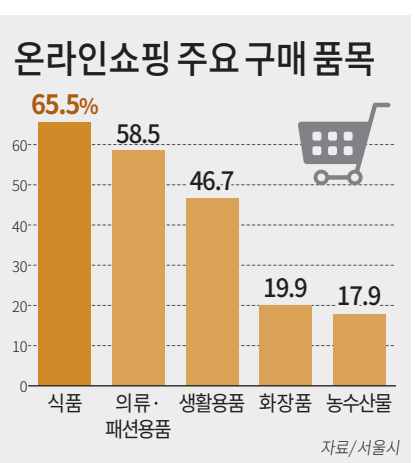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15.3%)순(복수 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온라인으로 옷보다 '식품' 더 많이 샀다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 이용 사기·편취 피해 2.7배 증가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이었으며, 해당 쇼핑 금액은 평균 6만65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최저가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편취 피해가 2.7배가량 증가했고, 피해 품목은 의류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24일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가 작년 12월 18~27일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000명(지역불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65.5%)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류·패션용품(58.5%), 생활용품(46.7%), 화장품(19.9%), 농수



산물(17.9%)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식품이 의류·패션용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며 “최근 식품 전문몰에 배달앱까지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6500원이었다. 쇼핑횟수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쇼핑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부분은 ▲결제 편리성·안정성(81.2%) ▲가격(79.5%) ▲배송 안정성과 배송비 적정성(76.5%)이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47.6%) ▲고객센터 상담처리(53.9%) ▲판매자 및 제품정보 표시(56.7%)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이날 시는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작년 센터에 들어온 상담은 총 6460건으로 전년 8723건 대비 26% 감소했으나, 사기·편취피해(1149건)와 예매·예약서비스 피해(364건)는 각각 2.7배, 2.4배 급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4월 25일 (토) 음력: 3월 17일

수도권 날씨: 11 ~ 2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9/24, 동두천 10/23, 가평 9/24, 파주 9/21, 서울 11/23, 양평 10/24, 인천 11/19, 수원 11/23, 용인 11/23, 평택 10/23, 백령도 9/1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현수야구선수협회장 “수면제 대리 처방, 반인륜적 불법 행위”  
▲13일 만에 멀티히트 김하성, 2안타 1도루 1득점 활약 /사진 뉴스시

▲악플러에 칼 빼든 프로축구선수협회 “선처 없다”  
▲‘밈상이 영웅으로’ 롯데 황성빈 “잘하고 있다는 말, 크게 와 닿아”



▲패하면 올림픽 탈락...황선홍 vs 신태용 ‘단두대 매치’ /사진 뉴스시  
▲KIA 외인 투수 잔혹사 끝?...동반 상 승하는 크로우·네일